

응답하라, 나의 꿈!

431프로젝트

고3 2018년 09월 국어
최고난도 및 유형

이지오답핏

www.i-ez.net | 02-571-8170

응답하라, 나의 수능 - 나를 알아주는 최적의 학습 시스템

■ 문항별 분석

번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정답률
01	화법	화법	말하기 방식 평가	2	95%
02	화법	화법	계획의 반영	2	89%
03	화법	화법	내용 추론	2	96%
04	화법	화법	의사소통 전략	3	85%
05	화법	화법	화법의 특성	2	93%
06	작문	작문	글쓰기 계획	2	94%
07	작문	작문	작문의 특성	2	87%
08	작문	작문	글쓰기 계획	2	94%
09	작문	작문	자료 활용	3	89%
10	작문	작문	조건 활용	2	95%
11	문법	단어	품사	2	67%
12	문법	단어	용언	2	87%
13	문법	단어	로마자 표기법	3	83%
14	문법	국어사	국어사	2	75%
15	문법	문장	홀문장/겹문장	2	59%
16	문학	운문 문학	표현상 특징	2	86%
17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57%
18	문학	운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82%
19	문학	운문 문학	시어와 시구의 의미	2	93%
20	문학	운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2	80%
21	독서	독서	내용 일치	2	90%
22	독서	독서	부분 내용 추론	2	84%
23	독서	독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	2	49%
24	독서	독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	3	66%
25	독서	독서	어휘	2	91%
26	문학	산문 문학	작품 내용의 이해	2	89%
27	문학	산문 문학	소재 및 배경	2	93%
28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92%
29	독서	독서	내용 일치	2	82%
30	독서	독서	부분 내용 추론	2	72%
31	독서	독서	부분 내용 추론	2	63%
32	독서	독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	3	51%
33	독서	독서	내용 전개 방식	2	89%
34	독서	독서	부분 중심내용 파악	2	87%
35	독서	독서	부분 내용 추론	2	80%
36	독서	독서	구체적 사례에 적용	3	66%
37	독서	독서	전체 내용 추론	2	83%
38	독서	독서	어휘	2	90%
39	문학	산문 문학	인물의 성격과 태도	2	90%
40	문학	산문 문학	소재 및 배경	2	84%
41	문학	산문 문학	극의 형식과 특성	3	90%
42	문학	산문 문학	서술상 특징	2	87%
43	문학	산문 문학	소재 및 배경	2	79%
44	문학	산문 문학	외적 준거에 의한 감상	3	76%
45	문학	산문 문학	소재 및 배경	2	83%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국어 15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 세부단원정보 : 문법 | 문장 | 홑문장/겹문장

001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탐구 과제
하나의 문장이 안긴문장으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아래의 각 문장에서 안긴문장을 파악한 후, 생략된 문장 성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 보자.
- 자료
 - ㉠ 부모님은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 ㉡ 그 친구는 연락도 없이 그곳에 안 왔다.
 - ㉢ 동생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깨달았다.
 - ㉣ 그는 내가 늘 쉬던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 ㉤ 그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과제를 금방 끝냈다.

		안긴문장의 종류	생략된 문장 성분
①	㉠	부사절	없음
②	㉡	명사절	없음
③	㉢	명사절	주어
④	㉣	관형절	부사어
⑤	㉤	관형절	목적어

00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 — — — — < 보 기 > — — — — —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킬/러/문/항/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국어 17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 세부단원정보 : 문학 | 운문 문학 | 시어와 시구의 의미

0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평(生平)에 원(怨)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호(好)고져 호(好)야 십재황황(十載惶惶)*호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호(好)야 여공불급(如恐不及)*호(好)는 뜻을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호(好)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好)운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호(好)노라

<제4수>

출(出)호(好)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호(好)면 조월경운(鈞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호(好)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호(好)니 버리면 구태 구(去)호(好)라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호(好)니 오라 말라 호(好)노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호(好)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덴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 *계교 : 견주어 헤아림.
- *부급동남 :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 *현 :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물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떡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의 옹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침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 / 드래랑 / 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달 / 기나긴 밤을 / 한 허리를 / 버혀 내여”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00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흐’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 선 노송(老松) 있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啾啾)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애(天涯)*에 노닐기를 즐겨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

진실로 현실은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 내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현(幽玄)*한 솔바람소리 생길 리 있으랴.

그러나 나의 머리 위, 저 묘막(渺漠)*한 천공(天空)*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神韻)*이 없음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 할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로다.

- 유치환, 「선한 나무」 -

- * 추추(啾啾)히: 구슬프게.
- * 천애(天涯): 하늘의 끝.
- * 유현(幽玄): 깊고 그윽함.
- * 묘막(渺漠): 아득하게 넓은.
- * 천공(天空): 하늘.
- * 신운(神韻): 고상하고 신비로운 운치.

(나)

나는 매일 밤 수색으로 가는데 수색은 보이지 않는다
 모래내를 지나 ‘수색’ 표지판 밑으로 들어가지만
 여기가 수색 같지는 않다
 수색은 이곳이 아닐 것이다 수색이란 말만 있을 뿐이지

붙어 있을 뿐이지 수색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곳을 수색이라 하여도
 안개가 낄 때 눈이 내릴 때
 내가 매일 밤 수색으로 가면서
 왜 내가 수색으로 다다르지 못할까?
 날이 갈수록 낯선 이곳 행정과 기사들이 수색이라 하지만
 결코 수색이라고 수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 수색은 이런 곳이 아니다 수색은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곳이다
 거기는 적어도 태백 같은 산이 있고 석탄이 캐지고 삶 천지요
 그리고 몇 개 상점에
 철사로 걸린 남포등이 어둠을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이곳은 서울의 일부
 아무런 꿈도 무서움도 없는 천박하고 저 더러운 식민의 부스럼이다
 나는 매일 밤 수색으로 가면서
 여하튼 수색으로 가지 않는다
 수색은 지금 어느 어둠 속에서
 가명으로 누명으로 앓고 있을 것이다.

- 고흥렬 「수색(水色)으로 가며」 -

(다)

청풍(淸風)을 좋아 여겨 창을 아니 닫았노라.
 명월(明月)을 좋아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제1수>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爵祿)*을 맘에 들꼬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치었소

<제2수>

상 위에 책을 놓고 아래 신을 내어라.
 이봐 아해야, 날 볼 이 그 뉘고
 알게라, 어제 맞춘 므지술* 맛보러 왔나보다.

<제3수>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없다.
 나는 내 집에 내 세간을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제4수>

산아 너는 어이 한결같이 높았으며
 물아 너는 어찌 날날이 흐르느냐.
 처간(處間)*에 인지(仁智)한 군자는 못내 즐겨 하노니라.

<제5수>

오두미(五斗米)* 위하여 흥진(紅塵)의 나지 마라.
 바람 비 어지러워 갈 톱이 무서워라.
 나중에 실컷 뉘우치나 기구하다 기로다단(岐路多端)* 하여라.

<제6수>

- 이정, 「풍계육가(楓溪六歌)」-

- * 작록(爵祿): 벼슬과 녹봉.
- * 므지술: 불분명하나 맥락상 '묻어둔 술'로 보임.
- * 처간(處間): 초야. 궁벽한 시골.
- * 오두미(五斗米): 닷 말의 쌀, 얼마 되지 않는 녹봉을 일컬음.
- * 기로다단(岐路多端): 갈림길의 갈래나 가닥이 많음.

§ 출전 : 고3 2012년 07월 학력평가 국어 24번

005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대상의 부재로 방황하고 있다.
- ②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④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다.
- ⑤ 자연으로부터 인생의 깨달음을 발견하고 있다.

§ 출전 : 고3 2012년 07월 학력평가 국어 29번

006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의 ‘청풍’, ‘명월’과 제5수의 ‘산’, ‘물’은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 ② 제1수의 ‘창’은 제2수의 ‘문’과 달리 화자로 하여금 자연과 소통하게 하는 열린 통로라 할 수 있다.
- ③ 제2수의 ‘작녹’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제6수의 ‘바람 비’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④ 제4수의 ‘낙숫대’는 제5수의 ‘처간’에 있는 화자의 삶의 태도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 ⑤ 제4수의 끝이 없는 ‘저 욕심’은 제6수의 ‘흥진’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화자의 심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출전 : 고3 2012년 07월 학력평가 국어 27번

00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그것은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이며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삶의 정신적 가치를 드러낸다. 그렇기에 화자는 자연을 파괴하여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의 행동을 애석해 한다.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했던, 그런 순수한 삶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 ① ‘노송(老松)’은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로 화자에게 자연과의 교감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이겠군.
- ②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화자의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그 나무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는 순수한 삶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꺾였음을 의미하겠군.
- ④ ‘욕신의 더움을 취함’은 자연을 파괴하여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에는 정신적 가치로부터 멀어진 현대적 삶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암시되어 있군.

§ 출전 : 고3 2012년 07월 학력평가 국어 25번

008 (가)~(다)에 나타난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길가’와 (나)의 ‘수색’은 화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 가능한 공간이다.
- ② (가)의 ‘바람’과 (다)의 ‘청풍’은 화자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③ (나)의 ‘행정과 기사’와 (다)의 ‘옛사람’은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나)의 ‘태백 같은 산’과 (다)의 ‘띠집’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 ⑤ (나)의 ‘서울’과 (다)의 ‘흥진’은 화자가 자신을 단련하는 공간이다.

§ 출전 : 고3 2012년 07월 학력평가 국어 28번

009 다음을 (나)의 화자가 쓴 일기라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도 나는 수색으로 향한다. ①매일 밤 수색으로 가지만 내가 생각하는 수색은 아니다. 지금 수색은 네온사인이 명멸하고 있다. ②내가 찾는 모습과 달리 이곳은 지나치게 화려한 곳으로 변했다. 깊은 지하의 석탄을 캐는 인간들의 삶이 있는 곳, 몇 개 상점에 남포등이 걸려 있는 곳, 그런 소박하면서도 순수한 곳이 내가 가고 싶은 수색이다. 그런데 ③지금 금의 수색은 아무런 꿈도, 무서움조차도 없는 곳이다. ④나는 이런 수색에 조금씩 익숙해져 간다.

오늘도 나는 수색으로 간다. 수색을 드나들지만 ⑤여전히 나는 수색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다.

§ 출전 : 고3 2012년 07월 학력평가 국어 26번

010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와 (나)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시적 함축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첩표를 통해 호흡의 길이를 조절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예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점잖고 무게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역설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뇌를 효과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국어 23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 세부단원정보 : 독서 | 독서 | 구체적 사례에 적용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 위험’과 ‘신용 파산 스와프(CDS)’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는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 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용 평가 제도에서는 원화로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한 채권 가운데 발행자의 지급 능력이 최상급인 채권에 AAA라는 최고 신용 등급이 부여된다. 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부도가 난 채권에는 D라는 최저 신용 등급이 주어진다. 그 외의 채권은 신용 위험이 커지는 순서에 따라 AA, A, BBB, BB 등 점차 낮아지는 등급 범주로 평가된다. 이들 각 등급 범주 내에서도 신용 위험의 상대적인 크고 작음에 따라 각각 ‘-’나 ‘+’를 붙이거나 하여 각 범주가 세 단계의 신용 등급으로 세분되는 경우가 있다. 채권의 신용 등급은 신용 위험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한 가운데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시장에서 해당 채권의 가격이 ㉠ 떨어진다.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 금융 상품이다.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역할을 한다.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 한다.

- [A] 가령 은행 ㉡ 같은, 기업 ㉢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면서 그것의 신용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 회사 ㉣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기초 자산은 을이 발행한 채권이다.

보장 매도자는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합료를 받는데, 이것의 요율이 CDS 프리미엄이다.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크면 CDS 프리미엄도 크다. 한편 ㉡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보장 매입자는 유사시 손실을 보다 확실히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보다 큰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은 크다.

011 <보기>의 ㉠~㉡ 중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것은?

<보 기>

윗글의 ㉠과 ㉡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CDS 거래 ㉠~㉡를 비교하여 CDS 프리미엄의 크기에 순서를 매길 수 있다. (단, 기초 자산의 발행자와 보장 매도자는 한국 기업이며, ㉠~㉡에서 제시된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CDS 거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
㉠	BB+	AAA
㉡	BB+	AA-
㉢	BBB-	A-
㉣	BBB-	AA-
㉤	BBB-	A+

① ㉠

② ㉡

③ ㉢

④ ㉣

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며, 민법상 사망에 의해서 개시된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를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순위를 따진다. 그리고 앞선 순위에서 상속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간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

상속 비율은 유언을 우선으로 하되,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에 따른다. 민법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남녀나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은 비율로 나누어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동일 순위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민법 규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기로 협의하면 그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는 상속인들 간의 협의를 통해 일정액의 기여분을 더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게 된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여러 상속인 중에서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줄 경우, 나머지 상속인들은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의 일정 부분이 돌아가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비속이 상속인일 경우에는 본래 상속할 재산의 1/2까지, 형제자매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일 경우에는 1/3까지만 유류분을 인정한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이를 ㉔단순 승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는 ㉕한정 승인과 ㉖상속 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한정 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는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 포기 신고가 승인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㉗한정 승인은 신고가 승인되더라도 여전히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한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순 승인을 한 뒤에 피상속인의 빚이 새롭게 발견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인들이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피상속인 : 상속인에게 자기의 권리, 의무를 물려주는 사람. 즉 사망한 사람.
- * 상속인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룸.
-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룸.
- * 방계혈족 :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을 이룸.

§ 출전 : 2016년 E변형특강 국어 PART02 25번

01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 ②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
- ③ 한정 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피상속인의 빚을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
- ④ 일정 기간 안에 상속에 관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 간다.

§ 출전 : 2016년 E변형특강 국어 PART02 28번

013 ㉠으로 인한 결과를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 ② 자신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 ③ 법률로 정해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 ④ 동일한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어도 단독 상속인이 된다.
- ⑤ 상속인이 승계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줄어든다.

§ 출전 : 2016년 E변형특강 국어 PART02 26번

014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다음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여러 상황을 가상해 본 것입니다. 각 상황에서 어떤 상속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지를 판단해, ㉠~㉣와 대응시켜 보세요. 단, 정신적 측면이나 상속자가 지닌 재산 규모는 판단에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 ㉠: 자식이 없는 이 씨는 병으로 남편을 잃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은 부부가 살고 있던 아파트 한 채였다. 두 사람이 지냈던 아파트는 3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지 한 달이 지나서 10억이 넘는 은행 채무가 발견되었다.
- ㉡: 독자인 김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김 씨의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 군데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 워낙 말이 없었던 분이라 김 씨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 하게 알지 못한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진 빚도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 ㉢: 두 형제 중 맏이인 박 씨는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다. 어머니는 시골의 논밭을 유산으로 남겼고, 그 가치는 1억이 넘었다. 장례를 치르면서 박 씨는 어머니가 농협에 3천 만원, 마을 주민 몇몇에게 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것을 알았다. 그리고 더 이상의 빚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
①	a	b	c
②	b	c	a
③	b	a	c
④	c	b	a
⑤	c	a	b

015 읽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국인 김씨는 30대 후반의 회사원이다. 그는 몇 달 전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기뻐했다. 아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인 김씨는 퇴근 후 귀가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한국인 김씨의 유족은 일곱 살 된 장녀와 임신한 상태의 아내, 그리고 한국인 김씨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다. 한국인 김씨는 개인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으며, 드러난 빚은 없었다.

- ① 한국인 김씨의 아내는 한국인 김씨가 남긴 재산 중에서 3/7을 상속받을 수 있겠군.
- ② 일곱 살 먹은 장녀와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가 가장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되겠군.
- ③ 한국인 김씨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국인 김씨 아내의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도 있겠군.
- ④ 한국인 김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겠군.
- ⑤ 상속이 이루어진 뒤에 숨겨져 있던 빚이 발견되면 한국인 김씨의 아내가 갚아야 되는군.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인의 삶은 광고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다. 광고들은 상품을 소비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으며, 소비해야만 성공과 위세를 증명할 수 있다고 떠들어댄다. 현대인 역시 친숙하면서도 교묘한 광고에 설복당하며, 끊임없이 소비해야만 안락하고 풍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장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부른다.

보통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비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품 또는 용역을 이용하거나 소모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보드리야르에게 현대 사회의 소비란 이런 사용 가치의 소비를 넘어 상품에 부착된 기호를 포섭하거나 그 기호에 포섭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호는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의미하는데, 보드리야르는 ‘행복, 풍부함, 성공, 위세, 현대성’ 등 광고에 의해 상품이 지니게 된 이미지가 그 기호의 의미라고 해석한다.

보드리야르는 이렇듯 소비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기호 및 의미작용의 논리를 분석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먼저 ‘사회적 차이화’를 제시한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특정한 사물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지 않고 차이에 대한 욕구로 해석한다. 즉, 인간들은 기호를 포섭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차이화를 시도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차이화란 사람들이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보드리야르는 ‘물상화의 과정’을 말한다. 소비 사회는 상품이 소비되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다.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과 그로 인한 과잉 생산은 사용 가치의 소비를 넘어 기호나 이미지의 소비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소비 사회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개인들에게 소비를 강요하는 일관된 가치체계를 주입시키고 허구적 이미지를 창조해 낸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는 더 이상 자율적인 주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아니며, 욕구의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 질서와 상품의 상대적인 사회적 위세 및 가치를 결정하는 의미작용의 질서에 지배받는다. 이처럼 인간이 소비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상품에 둘러싸이는 과정이 곧 물상화의 과정이다.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소비 행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의 발생 이유까지 독자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빈곤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빈곤하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재화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소비 사회의 ‘사회적 논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대인이 희소성이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차이화의 논리에 함몰되고, 현대 사회는 그 유지를 위해 물상화의 과정을 진행시키는데, 이 차이화와 물상화가 빚어내는 절묘한 이중주가 소비 사회의 사회적 논리인 것이다.

§ 출전 : 2016년 E변형특강 국어 PART02 19번

016 읽 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대한민국이 세계 제2위의 아웃도어 마켓으로 성장할 만큼 고가의 등산복이 유행이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고가의 유명 브랜드 제품 ㉠과 저가의 중소기업 제품 ㉡는 발수성·투습성·보온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히말라야가 아닌 동네 뒷산을 등반하면서 굳이 고가의 제품을 입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고가의 ㉠을 선호하며, 이러한 소비 성향은 유명 브랜드 제품 ㉠의 광고를 접한 사람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 ① ㉠과 ㉡는 사용 가치 면에서 별다른 차별성을 지니지 않는다.
- ② ㉠과 ㉡의 가격 차이는 소비자들에게 기호로 작용하지 않는다.
- ③ ㉠의 광고는 사람들의 소비를 자극하는 허구적 이미지를 창조하겠다.
- ④ ㉠에 대한 선호는 제품 자체에 대한 욕망보다는 차이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 ⑤ <보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소비 사회'의 특징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출전 : 2016년 E변형특강 국어 PART02 20번

017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의사를 집에 부른다.
- ②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
- ③ 화는 또 다른 화를 부른다.
- ④ 그 가게에서는 값을 비싸게 불렀다.
- ⑤ 사람들은 그를 불운한 천재라고 부른다.

고3 2018년 09월 평가원 국어 31번, 32번

이게 바로 핵심이야!

왜 틀렸지?

이것만은 기억하자!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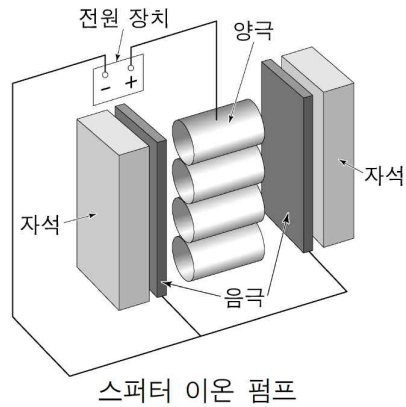
§ 세부단원정보 : 독서 | 독서 | 부분 내용 추론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에서는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 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된다.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면 양자 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른다.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의 크기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이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 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STM은 대체로 진공 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표면을 덮어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진공 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 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 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 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라 한다.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또한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의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가령 질소의 경우 20°C, 760토르*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3×10^{-9} 초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⁹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⁹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요구된다.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는 ㉠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 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 통과 연결하여 사용한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원통 모양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를 높여 준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 과정이 1차 펌프 작용이다.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는다.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이는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2차 펌프 작용이라 부른다. 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다.

*토르(torr) : 기체 압력의 단위.

018 ㉠의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 ②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
- ③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을 전기력으로 끌어당긴다.
- ④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고정시킨다.
- ⑤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한다.

019 읽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STM을 사용하여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한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 통 A~E가 있고, 각 진공 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다. 진공 통 A 안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이며, 모든 진공 통의 내부 온도는 20°C 이다. (단, 기체 분자가 규소 표면과 충돌하여 달라붙을 확률은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정하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 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이다.)

진공 통	기체	분자의 질량 (amu*)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 (개/cm ³)
A	질소	28	$4N$
B	질소	28	$2N$
C	질소	28	$7N$
D	산소	32	N
E	이산화 탄소	44	N

*amu : 원자 질량 단위.

- ①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
- ②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9} 토르보다 낮겠군.
- ③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
- ④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 ⑤ E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

유사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단위로 사용한다.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 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 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어떤 학습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출전 : 고3 2016년 06월 평가원 국어 17번

020 읽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퍼셉트론의 출력 단자는 하나이다.
- ② 출력층의 출력값이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으면 오차 값은 0이다.
- ③ 입력층 퍼셉트론에서 출력된 신호는 다음 계층 퍼셉트론의 입력값이 된다.
- ④ 퍼셉트론은 인간의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 ⑤ 가중치의 갱신은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서 출력층의 출력단자 방향으로 진행된다.

§ 출전 : 고3 2016년 06월 평가원 국어 18번

021 윗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색깔이나 형태가 다른 사과와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군.
- ② 학습 데이터에 두 가지 범주가 제시되었으므로 입력층의 퍼셉트론은 두 개의 입력 단자를 사용하겠군.
- ③ 색깔에 해당하는 범주와 형태에 해당하는 범주를 분리하여 각각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야 하겠군.
- ④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학습 단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과 사진의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다면,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0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이다’로, 1 신호가 출력되면 ‘사과가 아니다’로 해석해야 되겠군.

§ 출전 : 고3 2016년 06월 평가원 국어 16번

022 윗글에 따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는 ㉡의 기본 단위이다.
- ② ㉢는 ㉡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 ③ ㉡가 변하면 ㉢도 따라서 변한다.
- ④ ㉢는 ㉡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 ⑤ ㉡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는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 출전 : 고3 2016년 06월 평가원 국어 19번

0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아래의 [A]와 같은 하나의 퍼셉트론을 [B]를 이용해 학습시키고자 한다.

[A]

- 입력 단자는 세 개(a, b, c)
- a, b, c의 현재의 가중치는 각각 $W_a=0.5$, $W_b=0.5$, $W_c=0.1$
-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으면 0을, 그렇지 않으면 1을 출력

[B]

-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는 각각 $I_a=1$, $I_b=0$, $I_c=1$
-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되는 정답 = 1

- ①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겠군.
- ② 이 퍼셉트론이 1을 출력한다면, 가중합이 1보다 작았기 때문이겠군.
- ③ [B]로 한 번 학습시키고 나면 가중치 W_a , W_b , W_c 가 모두 늘어나 있겠군.
- ④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0에 수렴하겠군.
-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때 그에 대한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1이겠군.

NOTEPLY™

정답과 해설

응답하라. 나의 수능 - 나를 알아주는 최적의 학습 시스템

www.noteply.co.kr

1 정답 ④

문장의 짜임새 파악

정답해설 : ㉔에는 ‘내가 늘 쉬.’가 전성 어미 ‘-던’을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부사어 ‘공원에서’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피하기] ① ㉑에는 ‘자식이 건강하.’가 전성 어미 ‘-기’를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② ㉒에는 ‘연락도 없.’이 전성 어미 ‘-이’를 통해 부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③ ㉓에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이 전성 어미 ‘-음’을 통해 명사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⑤ ㉕에는 ‘아주 어렵.’이 전성 어미 ‘-은’을 통해 관형절로 안겨 있으며, 안긴문장에는 주어 ‘과제가’가 생략되어 있다.

2 [정답] ④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를 둘로 나눈다면 ‘나는 사실을 몰랐다’와 ‘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가 될 것이다. 이 때 두 문장에서 중복되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관형절로 안긴문장의 주어 ‘정수가’를 생략하지 못한다.

※ 동격 관형절 : 관형절의 피수식어가 관형절의 한 성분이 아니라 관형절 전체의 내용을 받아주는 관형절. 성분 생략이 불가능함. (‘사실’=‘정수가 은희와 결혼했다.’)

오답이 오답인 근거!

① ‘동생이 숙제를 한다.’가 ‘형이 동생을 불렀다’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동생’이 중복되어 주어 ‘동생이’가 생략됐다.

② ‘형이 대학생이 됐다.’가 ‘동생은 형과 여행을 했다.’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형’이 중복되어 주어 ‘형이’가 생략됐다.

③ ‘경희가 버스에 탔다.’가 ‘영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경희’가 중복되어 주어 ‘경희가’가 생략됐다.

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가 ‘그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에 관형절로 안기면서 ‘화가’가 중복되어 주어 ‘화가가’가 생략됐다.

3 정답 ①

문학

[16~20] 고전 시가 - (가) 권호문, ‘한거십팔곡’ / 현대시 - (나)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이론 - 고전 시가와 현대 시의 리듬

(가)

지문해설 : 벼슬길에 나아가 임금을 섬기는 삶과 강호에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 사이의 고민을 드러낸 뒤,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사대부의 심회를

진솔하게 노래한 총 19수의 연시조 작품이다. 각 연의 시상이 전개되면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강호에 은거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삶(치군택민)과 ‘강호한정’을 추구하는 삶(조월경운)이 교차적으로 드러나면서 당대 사대부들의 현실 인식과 대응 방식을 살필 수 있다.

[주제]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사이의 고민과 한가한 삶의 수용

(나)

지문해설 : 화자의 가난한 어린 시절, 삶을 힘겹게 꾸려갔던 어머니의 한스러움을 회상하며 그려낸 작품이다.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생선을 파는 어머니의 고된 삶을 생선 눈갈의 빛이나 남강에 비친 별빛 등으로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빛의 이미지는 마지막 연에서 달빛이 반사되는 옹기의 반짝임으로 연결되고, 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환기하며 어머니의 한을 압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제]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에 대한 회상

(다)

지문해설 :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음보와 음절 등 형식적 측면의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말소리, 휴지(休止), 선표나 마침표 등의 반복을 통해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배후로 물러나 친숙함 혹은 낯설음을 유발하는데, 김소월과 이상의 시가 각각 해당된다. 즉 한국 현대시에서의 리듬은 김소월의 친숙함과 이상의 낯설음과 같은 간극 사이에 위치한다.

[주제] 고전 시가와 현대 시에서 드러나는 리듬과 현대 시에 작용하는 고전 시가의 리듬

1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제1수>의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아’, <제16수>의 ‘오라 말라 흥느뇨’, <제17수>의 ‘어찌 다르리’, ‘아무 덴들 어머리’ 등에서 ‘~리아’, ‘~뇨’, ‘~리’ 등의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고민을 강조하고 있으며, (나)는 2연의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3연의 ‘손 시리게 떨던가’, 4연의 ‘반짝이던 것인가’에서와 같이 ‘~ㄴ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 모두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백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③ (가)의 ‘강호(江湖)’는 탈속성이 있는 시적 공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의 시적 공간은 탈속성과 관련이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뚜렷한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의성어와 의태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4 정답 ②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제17수>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은, 은둔함으로써 행하는 도(道)와 세상에 나아감으로써 행하는 도는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제8수>의 ‘빈천거(貧賤居)’, <제16수>의 ‘행장유도(行藏有道)’와 연결 지어 보았을 때, 화자는 강호에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을 통해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수>의 화자가 고려한 ‘공명’은 <제17수>의 ‘성현이 가신 길’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피하기] ① <제2수>의 화자가 ‘부급동남(負莚東南)’한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 공명함으로써 훌륭한 임금을 섬기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③ <제4수>의 화자는 임금과 즐거움 사이, 공명과 강호 사이, 나아가 <제8수>에서는 치군택민과 조월경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러나 <제8수>의 중장과 종장에서 화자는 명철한 군자라면 기꺼이 이를 즐길 수 있어야 하고, 하물며 부귀는 위태로울 수 있어 ‘빈천거’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강호’를 선택한 여러 이유 중 하나로 ‘부귀 위기’를 들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제4수>의 ‘기로(岐路)’는 자연을 즐기는 일과 벼슬살이를 하는 일 사이에서 화자가 겪는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제17수>에서 화자는 강호에 은거하거나 벼슬에 나아가는 것은 한 가지 도(道)로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기로’가 ‘일도’로 나타난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된 결과로 볼 수 있다. ⑤ <제17수>에서 ‘은(隱)거나 현(見)거나 도(道) | 어찌 다르리’를 통해 강호에 은거하여 가난한 삶을 살아가도 성현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5 [정답] ②

<운문복합>

(가) 유치환, ‘선한 나무’

■ 핵심정리

- 성격 : 관조적, 현실 비판적, 산문적
- 특징
 - 산문적인 진술을 통해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냄
 - 한자어를 활용하여 기품 있게 표현
 - 자연물을 통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냄.
- 제재 : 베어 넘어진 노송
- 주제
 - 자연 파괴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
 - 삶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 순수한 삶에 대한 소망
- 노송의 의미
 - 자연 속의 노송: 자연과 교감을 매개함-절대적 가치
 - 떨감이 된 노송: 육신을 데워 줌-상대적 가치

○ 시어풀이

- 노송 :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 바람 있음을~탄식하듯 울고 있어 : 노송을 통해 바람의 존재감을 확인함.
- 추추히 : 슬프게 우는 소리, 두런거리는 소리
- 그 소리 : 바람에 흔들리는 노송 가지의 소리
- 천애 : 하늘의 끝, 까마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소리가 미치는 범위(무한대)
-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 : 존재 자체로서의 가치, 정신적 가치, 존재적 가치
-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함 : 나무가 쪼개어져서 육신을 따뜻하게 해 주는 기능. 기능적, 물질적 가치
- 유현한 : 그윽한
- 묘막한 천공 : 아직도 ‘신운’이 남아 있는 공간, 곧 자연의 신비가 존재하는 공간
- 신운 : 자연과의 교감(바람의 존재를 느끼는 기운)
- 선한 나무 : 신운을 전달해 주는 순수한 존재

● 해제 : 이 시는 길가에 서 있던 노송이 떨감으로 베어져 버린 사건을 통해 자연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작품이다. 시적화자는 바람이 부는지 알 수 없는 날에도 길가에 서 있는 노송 가지의 탄식하는 듯한 떨림을 통해 그것을 알고 그 떨리는 소리를 따라 자연을 즐기곤 했지만, 어느 날 노송이 베어 넘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 시적화자는 한 그루의 나무를 길가에 세워 두는 것보다 잘라 내고 빠개어 육신을 데우는 떨감으로 쓰는 것이 더 유용하는 세속적인 가치 판단을 인정하면서도, 노송의 절명에 안타까워하며 노송처럼 허공에 팔을 높이 들어 바람에 떨리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해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시적화자에게 노송은 세속적 가치 이전에 자연의 신비한 기운을 느끼게 해주는 매개체였던 것이다.

이 시는 섬세한 감수성을 유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교감이 가능했던, 그런 순수한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화자가 그것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작품이다.

(나) 고흥렬, ‘수색으로 가며’

■ 핵심정리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사실적, 비판적
- 주제 : 진정한 삶의 공간(수색)의 상실
- 특징
 - ① 끊임없이 '수색'을 찾아가지만 화자가 원하는 '수색'을 이미 상실했다는 상실감과 허무감을 노래하고 있음
 - ② 역설법을 이용해 현재의 '수색'이 진정한 모습을 상실했음을 강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수색'은 이미 화려한 도시화가 진행된 곳으로 진정한 삶을 상실한 공간을 상징함

④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해제 : 이 시는 끊임없이 수색을 찾아가지만, 화자가 원하는 수색을 이미 상실했다는 상실감과 허무감을 노래하고 있다. 수색은 이미 화려한 도시화가 진행된 곳으로 진정한 삶을 상실한 공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수색’이 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변화 과정이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 이정, ‘풍계육가’

■ 핵심정리

○ 성격 : 자연친화적, 풍류적, 비판적,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경계

○ 특징 : ① 대화 형식(말을 건네는 방식)과 ‘~노라’의 영탄적 어조를 사용. ② 대비적 시어와 공간의 대립을 통해 자연에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 주제 : 청빈한 삶을 추구하며 어지러운 속세를 경계함

● 해제 : 자연에 대한 친화감과 자연과 벗하며 사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노래하며 자연에 심취한 화자의 심경을 청풍, 명월, 시내 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벗하여 청빈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과, 속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시적 긴장을 조성하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가)에서는 ‘노송’을 통해 삶의 정신적 가치를, (나)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색’을 통해 소박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다)에서는 속세의 공명과 욕심에서 벗어난 무욕의 삶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6 [정답] ⑤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제4수의 ‘욕심’은 세속적인 욕심을, 제6수의 ‘흥진’은 세속을 뜻한다. 화자는 세속을 멀리하고 자연에서 만족하는 태도를 지니므로 ‘흥진’과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의 ‘청풍, 명월, 산, 물’은 화자가 좋아하고 즐기는 자연물이다. ②의 ‘문’은 ‘창’과 달리 세속으로 통하는 통로로 화자는 이를 차단하고 있다. ③의 ‘바람 비’는 어지러운 속세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화자는 ‘작늑’을 맘에 두지 않는다. ④의 ‘냇숫대’는 화자가 지닌 소박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화자는 ‘처간’에서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7 [정답] ②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②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에서는 노송과 화자와의 교감이 드러나며 화자는 노송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즐겨 들으며 그로부터 정신적 가치를 찾고자 한다.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

어’ 부분에서 드러난다.

오답이 오답인 근거

① 노송은 신운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에서 화자와 노송과의 교감이 드러난다.

③ 물질성을 초월한 존재이며 교감의 대상인 노송이 베어졌음에 대해 안타까움, 애석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육신의 더움’은 물질적, 육체적 가치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⑤ ‘선한 나무’는 신운을 전달하는 매개체, 하늘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선한 나무가 없음’, 즉, 순수한 존재가 사라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8 [정답] ④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나)의 ‘태백 같은 산’은 화자가 추구하는 수색의 모습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공간이며, (다)의 ‘띠집’은 화자가 만족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공간이다. (가)의 ‘길가’는 화자가 추구하는 노송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노송이 베어져 없기에 부정적 의미를 드러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화자의 의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화자의 외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외적 세계이다. (나)에 표시된 ‘수색’은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간적 정감이 살아 있는 순수한 세계이다. (가)의 ‘바람’은 노송의 가치를 드러내주는 것이며 (다)의 ‘청풍’은 화자가 좋아하는 자연물이다. (나)의 ‘행정과 기사’는 화자와 달리 천박한 수색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다)의 ‘옛사람’은 자연을 두고 떠난 존재이다. (나)의 ‘서울’은 진정한 수색이 가능하지 않은 부정적 공간이며, (다)의 ‘흥진’은 자연과 대립되는 어지러운 속세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9 [정답] ④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화자의 정서를 추리하여 일기를 썼을 때 적절한 내용을 찾는 유형이다. 화자는 이름뿐이고 말뿐인 수색에 대해 의문을 느낀다. 이 공간은 자신이 찾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수색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자가 추구하는 수색은 태백 같은 산이 있는 곳, 석탄을 캐는 노동이 있는 곳, 남포동의 소박함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수색과 너무도 다른 현실의 수색은 화자에게 ‘날이 갈수록 낮선’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0 [정답] ④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가)에서는 ‘선한 나무’, ‘탄식하듯 울고 있어’ 등의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작품의 마지막 부분의 앓고 있는

수색을 의인화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상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내는 표현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1 정답 ②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5문단을 통해 CDS 프리미엄은 기초 자산의 신용 위험이 클수록,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커지며,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은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을 통해 신용 위험이 클수록 신용 등급이 낮아지고,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신용 등급이 높아진다는 점, 신용 등급이 AAA, AA, A, BBB, BB의 순으로 낮아진다는 점, ‘+’, ‘-’를 통해 크고 작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의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과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을 비교했을 때,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BB+로 다른 거래에 비해 낮으면서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로 가장 높은 ㉡가 CDS 프리미엄이 가장 크다. 또한 ㉠ ~ ㉣ 중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BB+로 다른 거래에 비해 낮으면서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로 ㉢와 ㉣보다 높은 ㉡의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크다. ㉠ ~ ㉣는 기초 자산의 신용 등급이 동일하기 때문에 보장 매도자 발행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은 ㉢, ㉣, ㉡ 순으로 CDS 프리미엄이 크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의 크기는 ㉡ > ㉣ > ㉢ > ㉠ > ㉡ 이다.

12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

[해제] 이 글은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개시되는데,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가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의 순서로 이어진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민법에 규정된 상속 비율은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일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동일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한편 상속 방법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한정 승인’, 상속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 포기’ 등이 있다. 한정 승인과 상속 포기는 법률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효력이 발생한다.

[주제] 우리나라의 상속 제도 설명

[구성]

1문단	상속의 개념과 범위
2문단	상속 비율
3문단	상속의 유류분 제도
4문단	상속의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
5문단	단순 승인의 예외의 경우

[정답] ①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 풀이: 1문단의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것에 따른다.’와 2문단의 ‘상속 비율은 유언을 우선으로 하되, 유언이 없으면 법정 상속분에 따른다.’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률 규정보다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것에 따르는 상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유류분 제도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의사보다 법률 규정을 우선시하기도 한다.

오답 풀이: ② 1문단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과 4문단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를 종합하면, 상속인이 되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승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한정 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 받은 빚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 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게 승계 받은 빚을 상속인이 지니고 있던 재산을 사용해서 갚지 않아도 된다. ④ 4문단의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의 ‘앞선 순위에서 상속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간다.’와 4문단의 ‘상속 포기 신고가 승인되면 그 사람보다 더 이상 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3 [정답] ②

인과 관계, 상관관계 추론

정답 풀이: 한정 승인은 상속 포기과 달리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 1문단의 ‘앞선 순위에서 상속인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간다.’를 고려할 때, 더이상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속 포기를 하면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이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정 승인은 자신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오답 풀이: ① 특별 한정 승인은 단순 승인을 한 뒤에 피상속인의 빚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미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제도이다. ③ 자격이 있는 상속인은 특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정해진 유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한정 승인과 무관하며,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상속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④ 한정 승인을 하여 상속인의 자격을 유지하더라도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독 상속인은 동일 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상속 방법을 선택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⑤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빚은 상속분에 따라 승계된다. 즉 한정 승인을 하여 상속인의 자격이 유지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은 다음, 물려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면 될 권리가 생길 뿐이다.

14 [정답] ④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 풀이: ㉞는 승계 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하다. ㉡는 승계 받을 재산과 빚의 규모를 정확하게 가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변제하는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하다. ㉣는 승계 받을 재산이 빚보다 확실하게 많은 상황이다. 따라서 상속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므로 ㉤(단순 승인)을 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적절하다.

15 [정답] ①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 풀이: 1문단에 따르면, <보기>의 사례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한국인 김씨의 직계비속인 장녀와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 그리고 한국인 김씨의 아내이다. 그리고 2문단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는 동일 순위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고 했다. 따라서 1순위에 해당하는 일곱살된 장녀와 뱃속에 있는 태아, 아내의 상속 비율은 1 : 1 : 1.5이므로, 순서대로 2/7, 2/7, 3/7을 각각 상속받게 된다.

오답 풀이: ② <보기>에서 가장 앞선 순위에서 해당하는 상속인은 한국인 김씨의 직계비속인 7살 난 장녀와 아직 한국인 김씨의 아내 뱃속에 있는 태아, 그리고 한국인 김씨의 배우자인 아내이다. ③ <보기>에서 한국인 김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1순위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1순위에 해당하는 아내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할 자격이 없다. ④ 3문단에 따르면, 자격이 있는 상속인에게는 본래 상속될 재산의 일정 부분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보기>에서 이미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이 있고, 그들이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인 김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처음부터 한국인 김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재산을 받을 수도 없다. ⑤ 5문단을 참고할 때, 상속이 이루어진 뒤에 상속 당시 몰랐던 한국인 김씨의 빚이 발견된다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하여 상속 받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된다. 그리고 이때에도 1순위 상속자들이 각각 상속 받은 비율에 맞게 갚아야지 한국인 김씨의 아내만 갚아야 할 이유가 없다.

16 [정답] ②

구체적 상황에 적용

정답 풀이: 고가의 ㉡와 저가의 ㉢는 사용 가치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소비자들은 ㉢를 외면하고 ㉡를 선호한다. 이는 ㉢의 가격이 지닌 기호 가치가 ㉡의 가격이 지닌 기호 가치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와 ㉢의 가격 차이는 소비자들에게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와 ㉢의 가격 차이는 소비자들에게 '사회적 차이화'라는 의미를 생성하는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 따르면 ㉡와 ㉢는 발수성·투습성·보온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를 의미하는 사용 가치 면에서 ㉡와 ㉢는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 ③ 4문단에서 '소비 사회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개인들에게 소비를 강요하는' '허구적 이미지를 창조해낸다.'고 하였다. <보기>의 유명 브랜드 제품 ㉡의 광고를 그러한 '다양한 전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보드리아르는 소비 사회에서의 '인간의 욕구를 특정한 사물에 대한 욕구로 해석하지 않고 차이에 대한 욕구로 해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 대한 선호 역시 '제품 자체에 대한 욕망보다는 차이에 대한 욕망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보다 ㉡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소비는 사용 가치가 아니라 기호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이다. 1, 2문단에서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소비가 발생하는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로 명명하고 있다.

17 [정답] ⑤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파악

정답 풀이: ㉡는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은 ⑤이다.

오답 풀이: ①은 '칭하여 오게 하다.'의 의미이다. ②는 '어떤 방향으로 따라오거나 동참하도록 유도하다.'의 의미이다. ③은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

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의 의미이다. ④는 ‘값이나 액수 따위를 얼마라고 말하다.’의 의미이다.

18 정답 ①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 속이 뚫린 원통 모양의 양극,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기장은 자석에 의해 형성된다. 고전압의 영향으로 ㉠의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이러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양극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의 ‘음극’이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 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 따르면 양이온이 ㉠의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오게 되는데, 이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를 흡착한다. 따라서 음극이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을 내놓는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며,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 ㉠의 ‘음극’으로 당겨진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기체 분자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의 ‘음극’에 박혀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의 ‘음극’이 양이온을 고정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4문단에 따르면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전자가 방출된다.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킨다.

19 정답 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라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작을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E와 D의 통 내부에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은 같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만 비교 대상이 된다. E의 압력은 D와 같으나 분자의 질량은 D보다 크기 때문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경우이며, 이때 E의 충돌 빈도는 D보다 낮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서 질소를 예로 들어 온도가 20°C, 압력이 10^{-9} 토르일 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대략 2,500초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건이 같은 <보기>의 진공 통 A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기체의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의 수에 비례한다. B는 기체 압력이 10^{-9} 토르인 A보다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적으므로 기체 압력이 10^{-9} 토르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진공도는 기체 압력이 낮을수

록 높아지고,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진공도는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낮아진다. C는 B에 비해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 수가 많으므로 C 내부의 진공도가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클 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 D는 A에 비해 분자의 질량이 크므로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 것이다.

20 [정답] ⑤

세부 정보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가중치의 갱신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는 여러 개이지만, 출력 단자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② 5문단에서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빼서 구한다고 했으므로, 둘이 같으면 오차 값은 0이 된다. ③ 3문단에서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된다고 했다. ④ 1문단에서 퍼셉트론은 인간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라고 했다.

21 [정답] ③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후에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고 했다.

[오답피하기] ① 5문단에서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야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색깔과 형태가 다른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4문단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에서는 색깔과 형태에 속하는 입력값은 각각 다른 입력 단자에 입력해야 한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다. ⑤ 4문단에서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정했다면 출력값이 ‘0’인 경우에는 정답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정했다면 출력값이 ‘0’일 경우에는 정답, ‘1’일 경우에는 정답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2 [정답] ③

과학,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지문해설 : 이 글은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신경 조직을 모델링하여 만든 것으로,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입력 단자와 입력값들을 처리하는 부분, 출력 단자로 구성된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들을 바탕으로 0과 1이라는 출력값을 얻는다. 인공 신경망은 이러한 기능을 지닌 다수의 퍼셉트론들이 여러 계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뉘는데,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에는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을 만들고, 이를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이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면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미 제공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오차 값을 구한다. 오차 값의 일부는 입력층의 퍼셉트론에 있는 가중치에 더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가중치가 갱신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출력값은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어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출력 값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

[주제]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의 과학적 원리

내용 간의 의미 관계 파악

정답해설 :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치의 합, 즉 가중합을 구한다. 그리고 이를 ‘임계치’와 비교하여 0과 1이라는 출력값을 내보낸다. 그런데 ‘가중합’과 비교하는 ‘임계치’는 2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고정된’ 값이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 되어 있다고 했다. ④ 2문단에서 가중합을 ‘임계치’와 비교하여 가중합이 ‘임계치’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라는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고 했다. ⑤ 5문단에서 인공 신경망의 학습 단계에서는 정답 값에서 출력층의 ‘출력값’을 뺀 오차 값을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에 더한다고 했다.

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학습 단계를 마쳐야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으므로,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보기>에서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을 때 1을 출력한다고 했으므로, 퍼셉트론이 1을 출력했다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았다고 볼 수 없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 과정이 반복될수록 출력값이 정답에 수렴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의 경우에는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정답인 ‘1’에 수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번 입력했을 경우, 가중합은 입력 단자 a, b, c의 현재 가중치에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인 1, 0, 1을 각각 곱한 후, 이를 더하여 얻은 값 0.6 이 된다. 그런데 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1이 아니라 0이다.

23 [정답] ③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다고 했다. 이를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면 가중합은 ‘ $0.5 \times 1 + 0.5 \times 0 + 0.1 \times 1$ ’,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 이때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인 1에서 출력값인 0을 뺀 ‘1’이 된다. 그런데 이 오차값의 일부가 입력 단자의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므로, [B]로 한번 학습시키면 가중치 W_a, W_b, W_c 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오답피하기] ① <보기>는 퍼셉트론을 이용한 학습 단계